2022. 8. 24.(수)
가 치 창 조 팀

2022년 안산지역 제조업체
추석 명절 실태조사

안산상공회의소

목 차

Ⅰ. 조사 개요 2

Ⅱ. 조사 결과 3

1. 추석 명절 휴무 계획 3

2.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 4

3. 경영환경 5

Ⅰ 조사 개요

□ 조사 목적

○ 안산지역 제조업체의 추석 명절 휴무계획 및 기타 경영환경 실태를 조사하여 기업경영에 필요한 지원방안 모색 및 개별기업의 참고자료로 활용

□ 분석 대상

○ 안산지역 제조업체

□ 조사 기간

○ 2022년 8월 10일(수) ~ 8월 18일(목), 9일간

□ 조사 방법

○ 팩스, 이메일, 온라인 조사

□ 조사 내용

○ 추석 명절 휴무 계획

○ 상여금 지급 계획

○ 경영환경

□ 응답 현황

구 분		응 답 수	응답비율
기업 규모	50인 미만	72개사	54.1%
	50인 이상 ~ 100인 미만	31개사	23.3%
	100인 이상	30개사	22.6%
합 계		**133개사**	**100.0%**

Ⅱ 조사 결과

1. 추석 명절 휴무 계획

□ 추석 명절 휴무기간

○ 안산지역 제조업체의 **평균 추석 명절 휴무기간**은 **4.1일**로 나타남.

* 추석 명절 기간: 2022. 9. 9.(금) ~ 12.(월), 4일(토 · 일요일 포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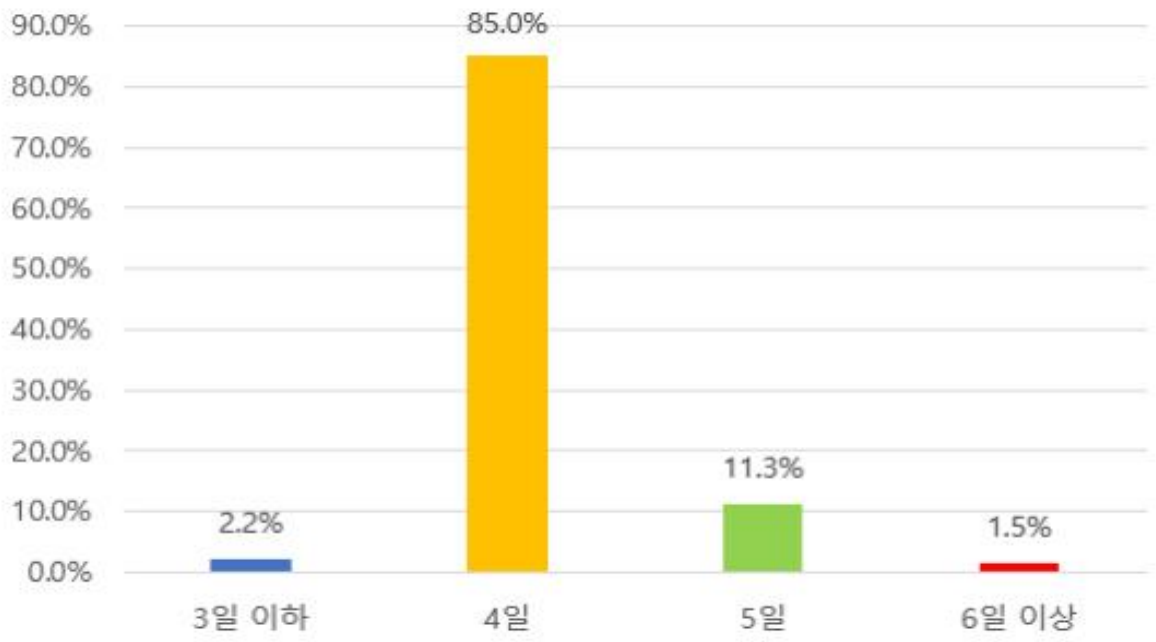
○ 안산지역 제조업체의 **85.0%**가 **추석 명절 휴무기간**을 **4일**로 계획한다고 응답함.

- **5일 이상 휴무를 계획한다고 응답한 기업**은 **12.8%**로 나타남.
- **3일 이하 휴무를 계획한다고 응답한 기업**은 **2.2%**로 나타남.

기업 규모별 추석 명절 휴무기간

구 분	3일 이하	4일	5일	6일 이상
전 체	**2.2%**	**85.0%**	**11.3%**	**1.5%**
50인 미만	-	91.7%	8.3%	-
50인 이상 ~ 100인 미만	-	77.4%	16.1%	6.5%
100인 이상	10.0%	76.7%	13.3%	-

※ 비율 계산상 ±0.1% 오차가 있을 수 있음.



2.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

□ 추석 상여금 지급 형태

○ 안산지역 제조업체 중 추석 **상여금 지급** 예정인 기업은 **45.1%**로 **전년 수준**으로 나타남.

- **정기상여금 지급 예정인 기업**은 26.3%, **특별상여금 지급 예정인 기업**은 18.8%
- **상여금 대신 선물 지급 예정인 기업**은 39.8%,
  상여금과 선물 모두 지급 예정인 기업은 25.6%

안산지역 제조업체 추석 상여금 지급 형태

상 여 금				선 물	미지급
'21년	'22년	정기상여금	특별상여금		
45.1%	45.1%	26.3%	18.8%	39.8%	15.0%

※ 선물 지급: 상여금 중복 지급 기업(34개사) 제외
※ 비율 계산상 ±0.1% 오차가 있을 수 있음.

○ 안산지역 제조업체 중 **추석 상여금 및 선물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**은 15.0%로 나타남.

- **미지급의 사유**로는 **'지급 규정 없음(45.0%)'**이 가장 많았으며, 그 외 응답은 '연봉제 실시(40.0%)', '경영 악화(15.0%)' 순

□ 추석 특별상여금 지급 수준

○ 추석 특별상여금 지급 예정인 기업(18.8%)의 **44.0%**가 추석 특별상여금을 '기본급의 50% 미만' 지급할 계획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함.

- **'일정금액'**의 경우 지급 수준은 **평균 280,000원**

안산지역 제조업체 추석 특별상여금 지급 수준

기본급의 50% 미만	기본급의 50% 이상	기본급의 100% 이상	일정금액
44.0%	8.0%	12.0%	36.0%

※ 비율 계산상 ±0.1% 오차가 있을 수 있음.

○ 추석 선물 지급 예정인 기업의 **선물 지급 수준**은 **평균 78,824원**으로 나타남.

* 상여금 중복 지급 기업(34개사) 포함

3. 경영환경

□ 체감경기

○ 안산지역 제조업체의 **55.6%**가 **전년 대비 체감경기**를 **'지난해와 유사'** 할 것으로 가장 많이 응답함.

* 전년도 추석 명절 기간: '21. 9. 18. ~ 9. 22. (토 · 일요일 포함)

기업 규모별 체감경기

구 분	호 전	지난해와 유사	악 화
전 체	**3.8%**	**55.6%**	**40.6%**
50인 미만	5.6%	58.3%	36.1%
50인 이상 ~ 100인 미만	-	51.6%	48.4%
100인 이상	3.3%	53.3%	43.3%

※ 비율 계산상 ±0.1% 오차가 있을 수 있음.

○ 전년 대비 올해 체감경기를 '악화'라고 응답한 기업(40.6%)의 **57.4%**가 **경기 악화 사유**를 **'내수 침체'**로 가장 많이 응답함.

- **50인 미만** 및 **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**에서는 **'내수 침체'**를 각각 65.4%, 60.0%로 가장 많이 응답함.
- **100인 이상 기업**에서는 **'내수침체(38.5%)'**, **'기타(38.5%)'**, **수출 감소(30.8%)** 순으로 응답함.
- **'기타(14.8%)'** : 글로벌 침체 영향, 에너지 비용 및 물가 상승 등

기업 규모별 체감경기 '악화' 사유

구 분	내수 침체	수출 감소	환율 변동	기 타
전 체	**57.4%**	**24.1%**	**9.3%**	**14.8%**
50인 미만	65.4%	19.2%	15.4%	3.8%
50인 이상 ~ 100인 미만	60.0%	26.7%	6.7%	13.3%
100인 이상	38.5%	30.8%	-	38.5%

※ 복수 응답, 합이 100%를 초과할 수 있음.
※ 비율 계산상 ±0.1% 오차가 있을 수 있음.

□ 자금사정

○ 안산지역 제조업체의 62.4%가 **전년 대비 자금사정**을 **'지난해와 유사'** 할 것으로 가장 많이 응답함.

* 전년도 추석 명절 기간: '21. 9. 18. ~ 9. 22. (토 · 일요일 포함)

기업 규모별 자금사정

구 분	호 전	지난해와 유사	악 화
전 체	**5.3%**	**62.4%**	**32.3%**
50인 미만	6.9%	61.1%	31.9%
50인 이상 ~ 100인 미만	-	58.1%	41.9%
100인 이상	6.7%	70.0%	23.3%

※ 비율 계산상 ±0.1% 오차가 있을 수 있음.

○ 전년 대비 올해 자금사정을 '악화'라고 응답한 기업(19.5%)의 46.5%가 **경기 악화 사유**를 **'매출 감소'** 과 **'원부자재 가격 상승'** 으로 가장 많이 응답함.

- **50인 미만 기업**에서는 **'원부자재 가격 상승(52.2%)'** 로 가장 많이 응답함.
- **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**에서는 **'매출감소(46.2%)'** 로 가장 많이 응답함.
- **100인 이상 기업**에서는 **'매출감소(42.9%)'** 와 **'원부자재 가격 상승(42.9%)'**, **'대금 회수 지연(14.3%)'** 순으로 응답함.

기업 규모별 자금사정 '악화' 사유

구 분	매출 감소	원부자재 가격 상승	환율 변동	대금 회수 지연
전 체	**46.5%**	**46.5%**	**2.3%**	**7.0%**
50인 미만	47.8%	52.2%	-	4.3%
50인 이상 ~ 100인 미만	46.2%	38.5%	7.7%	7.7%
100인 이상	42.9%	42.9%	-	14.3%

※ 복수 응답, 합이 100%를 초과할 수 있음.
※ 비율 계산상 ±0.1% 오차가 있을 수 있음.